

왕의, 한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



13일, 왕의는 북경에서 한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 신화넷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13일 북경에서 한국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왕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으로서 자주 래왕해야 한다. 최근 한동안 중한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량자간 공통 리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중국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량국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선린친선의 방향을 견지하며

호혜협력의 목표를 견지하고 방해를 없애며 서로 마주보고 나아감으로써 중한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추동하길 바란다.

조태열은 한국정부는 대 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중국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높이며 협력에 초점을 두고 량국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함께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방송

외교부:

중국,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가 반대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13일 민진당이 2016년 집권한 이후 '92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독립' 분립 입장을 고수해 대만지역의 세계보건총회 참가의 정치적 기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리면서 이에 비추어 중국은 올해 대만지역의 세계보건총회 참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는 충분한 리유와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 신화넷

상무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립장 발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 조 관세 인상 4년 검토 결과를 발표한 데 관해 14일, 상무부 대변인이 립장을 밝혔다.

5월 14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원래의 301 조 관세를 바탕으로 진일보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전지, 핵심 광물, 반도체 및 철강·알루미늄 등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하게 교섭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역법 301 조에 따른 관세 검토 절차를 램용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했다. 이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한 것으로 전형적인 정치통간

이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는 이미 미국 무역법 301 조 관세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미국은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고집하며 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거나 견제하려 하지 않겠다.", "중국과의 공급망 등 분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배한 것으로 량국 정상 합의에 따른 량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중국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 자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방송

일본 매체:

중국 전기차, 중남미 시장서 영향력 확대



3월 12일, 로동자들이 브라질 아마존주 마나우스에 위치한 비아디배터리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 신화넷

중남미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올 1월-4월 브라질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신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라고 전했다.

브라질자동차판매협회에 따

르면 브라질에서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및 플러그인(插电式) 혼합동력자동차가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브라질에서의 판매량이 급증해 1월-4월 4만 8,000대가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 규모다.

/ 신화넷

인애초의 사실과 진실

누가 인애초의 주인공가?

2023년부터 필리핀은 20년 넘게 중국 남사군도의 인애초(仁愛礁)에서 불법으로 '좌초'된 낡은 군함을 리용해 남해의 안보를 교란하는 등 도발과 사고를 일삼고 있다. 서방 언론은 이를 과장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대국인 중국이 소국인 필리핀을 괴롭힌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은 오히려 낡았다.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며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된다.

인애초는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로 2,000년 넘게 남해에서 활동해온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다.

2003년, 당시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와 외무장관 대행 프랭클린 엡달린은 인애초에 새로운 시설을 건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은 20여년이 지나도록 '좌초'한 군함을 끌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선체가 녹슬어가는 상황에서 도수차례 건설자재를 운송해 복구하는 등 인애초의 '현 상태'를 바꾸려 하면서 영구 점령을 노리고 있다.

2013년, 필리핀은 미국의 종용하에 악명 높은 남해중재안을 제기했다. 2016년, 남해중재안법정은 미국과 같은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에 힘입어 착오가 가득한 이른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필리핀의 일부 안고한 친미 반중 세력은 이를 근거로 인애초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애초는 주인 없는 땅도, 필리핀의 령토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대륙붕도 아니다. 필리핀의 령토 범위는 이미 일련의 국제조약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는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른바 '비교적 가까운 거리'란 주권 주장을 할 리유는 더더욱 아니다. 령토주권은 해양권 주장의 전제이며 해양 권리로 령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本末)을 전도한 것이다. 필리핀은 불법



남사 군도 완정을 지키는 장병들이 영서초를 순찰하고 있다. (자료사진) / 신화넷

적이고 무효한 남해중재안 판결에 따라 인애초에 대한 중국의 령토주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륙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오래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법적으로 전혀 성사되지 않는다.

누가 인애초의 현황을 개선시키고 있는가?

최근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 안노와 국방장관 테오도로, 외교부는 각각 성명을 내어 중국과 필리핀간의 인애초 합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립검은 "중국은 대화로 통해 필리핀과 인애초 문제를 포함한 해양 관련 분쟁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군자협정"(君子协定)이든 내부 량해든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든 모두 중국의 노력과 진정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표시했다.

인애초는 중국 남사군도의 무인암초로 중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가 서명한 <남해 각국 행동선언>

제 5 조는 남해 무인암초의 '무인무시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정부 시기 남해 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국과 필리핀 량국은 인애초 문제에 대해 '군자협정'을 맺었다. 필리핀은 더 이상 불법 '좌초'된 군함에 건설자재를 운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중국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불법 '좌초'된 군함에 필리핀이 필요한 생활물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립시로 특별 조치를 취했다.

올 초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필리핀 서부 군구와 반복적으로 논의하여 인애초에 대한 운송 및 보급의 '새로운 모델'을 내왔다. '새로운 모델'이란 인애초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이 제기한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인애초의 '좌초' 군함에 대해 식량, 물 또는 기타 인도적 물자만 수송할 것을 약속했으며 보급 임무 수행 이틀전에 중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임무 수행 당일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각각 해양경찰선 1척과 민용 선박 1척을 파견하여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보급 임무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인애초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줄곧 노력했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필리핀과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내부 리해와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 대변인 립검은 "필리핀의 관련 발언은 중국과 필리핀이 달성한 '군자협정', 내부 리해 및 '새로운 모델'의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의 리해와 합의는 이전 차이를 통제하고 충돌을 피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인애초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필리핀측이 국제교류의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사실을 존중하며 약속을 준수하고 침해와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국측과 타당하게 이견을 처리하는 올바른 궤도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 국제방송

미국이 남해서 어떻게 사육을 쳤는지는 력사가 보여준다

영국 국제법 학자인 앤서니 카르티 교수가 영국·프랑스·미국의 국립기록보관소를 조사한 결과 분쟁중인 남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서구 국가의 력사가 뒤받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르티를 모시고 남해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방 기록보관소는 남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뒤받침한다"

카르티는 최근 신화넷과의 인터뷰에서 "력은 분쟁중인 남해문제에서 미국이 트라블메이커(麻烦制造者)라는 것을 증명한다. 반면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은 서방의 기록보관소에도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카르티는 영국·프랑스·미국의 국립기록보관소를 조사한 후 최근에 출간한 《남해의 력사와 주권》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남해 혼란 틈타 사육 행진 미국

카르티는 미국이 남해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진짜 리유는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당시 미국 국방장관 존 델레스의 기록보관소를 조사하던 중 미국이 남해문제에 개입하려는 리유를 보여주는 맥아더 장군과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이 나눈 대화 기록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서쪽 경



2017년 3월 19일, 남해함대 항공병 모 비행단이 우리 나라 남해 섬과 암초를 순항하고 있다. / 신화넷

계가 중국의 동쪽 해안선이어야 한다는 조지 케넌의 계획에 동의했다."고 카르티는 말했다.

맥아더 장군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에 참여했다. 조지 케넌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쏘련 분쇄를 제안한 미국 고위 외교관이다.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카르티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우월하고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 19세기초부터 주장한 기본 원칙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하던 중 미국이 남해문제에 개입하려는 리유를 보여주는 맥아더 장군과 미국 전략가 조지 케넌이 나눈 대화 기록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서쪽 경

계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해 섬들이 중국의 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리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남해중재안 판결은 일부 국가의 사육을 채우기 위한 수단

카르티는 2016년 이른바 남해중재 법정이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21 조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얇은 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문서를 해석한 방식은 제 121 조의 문자적이고 과학적인 지리적 설명에 위배된다. 섬들을 암초로 해석한 것은 제 121 조 2항과 제 121 조 3항에 대해 지질학적 또는 문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이 지어낸 것으로 법정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카르티는 영국 외교부의 문서를 언급하며 "청나라에 의해 주권이 주장되었던 1909년 직후부터 1930년대까지 영국은 서사군도에 대해 중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명확한 립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사군도 문제는 프랑스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부처내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그들은 법률적 문제에서 중국이 남사군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1890년대 이후 그들 자신이 수집한 것과 다른 나라들이 수집한 기록에 근거했다."고 그는 말했다. / 신화넷